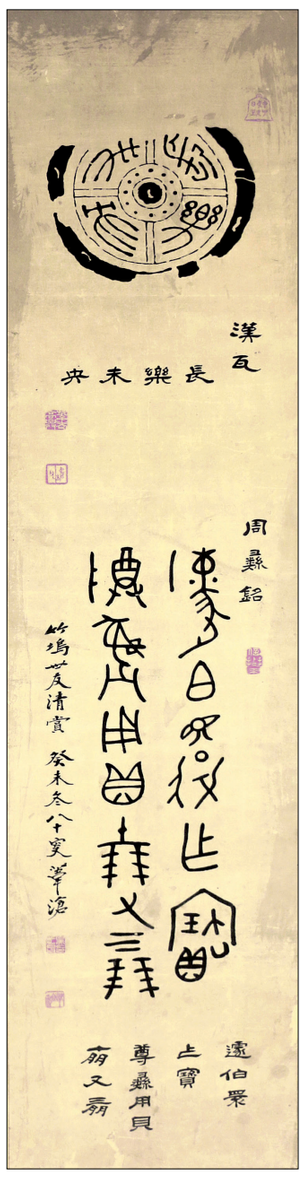


오세창 선생은 전서와 예서를 혼합한 글씨나 와당(瓦當), 고전(古錢), 갑골문형태의 구성적인 작품을 시도해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다. '와당' 오세창 作.

한용운·오세창 선생, '조국사랑'으로 맺은 緣

남한산성 만해기념관 특별기획전
'독립운동가 오세창과 만해 한용운'

어지러운 시국 속 맞이하는 98번째 3.1절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선 독립 운동가들을 기리는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독립이란 이름 아래 민족정신을 한 데 모았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오세창 선생을 조명하는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끈다.

남한산성 만해기념관(관장 전보삼)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 만해기념관 기획전시실서 '독립운동가 오세창과 만해 한용운'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선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민족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웠던 오세창 선생(1864-1953)과 만해 한용운 스님(1879-1944)의 유묵(遺墨 : 살았을 때에 써 둔 필적) 20여점이 전시된다.

오세창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단 이유로 3년 간 옥고를 치렀다. 또한 오 선생은 '한성순보' 기자로 활동하다 8.15광복 후 '매일신보사' 및 '서울신문사'의 명예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언론인이었으며, 전서와 예서에 조예가 깊은 서예가이기도 했다.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근역인수(槿域印藪)〉 등 저서를 남겼으며,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

또 다른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만해 한용운 스님과 오세창 선생의 인연은 만해 스님이 '매일신보'에 5차례에 걸쳐 연재한 '고서화의 삼일'이란 글에 잘 드러난다.

만해 스님은 1916년 11월 박한영·김기우 등과 함께 서울 종로구 돈의동에 위치한 오세창 선생의 집에 방문했다. 당시 만

역매 오경석 子 독립운동가 오세창
전서와 예서에 조예 깊은 서예가
만해 한용운, 매일신보 연재서
오세창 작품 본 감회 5차례 술회
"조선고서화의 주인" 높이 평가

해 스님은 벽에 걸린 오세창 선생의 작품과 저서 〈근역서휘〉와 〈근역화휘〉 등을 보고, 그 감회를 '고서화의 삼일'이란 제목으로 연재했다. 만해 스님은 이 연재서 자신을 '서화배척당'이라 낮추고 오세창 선생을 '조선고서화의 주인'이라 칭할 만큼 오세창 선생의 작품과 업적을 높이 기린 것으로 알려진다.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까지 선인들의 필적을 모아 엮은 서첩인 〈근역서휘〉 37책과 조선 역대 유명 화가들의 그림 67점을 모은 화첩 〈근역화휘〉 3책은 현재까지도 서화사는 물론 역사, 생활사, 민속 등 측면에서도 풍부한 자료를 전하는 서첩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오세창 선생은 1933년 북향집 심우장의 당호를 쓴 현판을 만해 스님에게 직접 만들어주며 각별한 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더불어 1939년 7월 12일 만해 스님의 회갑연에서 '오래 오래 사시라고 수자상(壽者相)'이란 글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선 오세창 선생이 만해 스님에게 선물했던 회갑시 '수자상'을 비롯해 오세창 선생의 작품 11점과 석주 스님이 쓰신 만해 스님의 옥중한시 등이 공개된다. 이밖에 오세창 선생의 아버지이자 조선 후기 역관·서화가였던 오경석 선생의 작품 1점도 새롭게 선보인다.

만해기념관 측은 "경기남부보훈지청 지원사업 일환으로 매년 3.1절을 맞이해 독립운동가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며 "올해는 오세창 선생과 만해 한용운 스님 관련 작품을 한 자리에 전시함으로써 두 분의 조국 사랑 정신을 관람객들에게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양할 수 있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031)744-3100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지란기미1' 오세창 作. 이번 전시에선 위 작품 외 오세창 선생 작품 11점이 전시된다.

오승윤 화백 展
봄의 정취 '만끽'

로터스갤러리, '꽃과 풍수' 특별전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는 3월 3일~5월 30일 오승윤 화백 특별전 '꽃과 풍수'를 진행한다. 오승윤 화백(1939~2006)은 청·적·황·백·흑 5가지 오방정색을 기본으로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화려하게 표현한 작품을 남겼다.

이번 전시에선 오승윤 화백의 오방정색 풍수 작품 가운데 20호 변형 캔버스 시리즈와 꽃을 소재로 한 작품을 다수 소개, 만물이 소생하는 봄의 정취를 선사할 예정이다.

오승윤 화백은 꽃 그림 뿐 아니라 풍속화와 풍경화에 한국인의 정신과 본질을 불어넣은 한국화단의 독보적 존재로 평가받는다. 특히 오방색을 사용해 독특한 조형적 실험을 완성한 풍수시리즈는 한국의 순수하고도 절제된 미를 드러낸 작품이다.

로터스갤러리 측은 "오 화백의 오방색 꽃에는 꽃이 가진 사랑과 감사, 위로의 의미와 함께 평화, 선(善), 순수함을 담고 있다. 풍수 작품에는 우주의 본질, 자연과 인간의 조화, 평화 메시지 등이 함축돼 관람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 설명했다.

박아름 기자



'꽃' 오승윤 作. 65x94cm

천태중앙博, '무량생명과 사리장엄' 특별展

3월 26일까지 복장물 및 사리장엄구 총 60여점

2017년 천태종 소장 유물 첫 전시

불보살의 복장서 나온 복장물과 사리장엄구 등 천태종 소장 유물이 한 자리에 모였다.

불교천태중앙박물관(관장 장호)은 3월 26까지 '무량생명(복장물)과 사리장엄' 특별전을 진행한다. 복장물 및 사리장엄구 총 60여점이 소개되는 이번 특별전은 2017년 천태종 소장 유물을 소개하는 첫 번째 전시다.

복장물로는 고려시대 아미타삼존 다라니, 아자범자원상 태장계만다라, 조선시대 대불정수능엄신주 다라니 등 복장물과 복장물을 넣는 후령통 일괄, 황초폭자(黃 幅子, 후령통을 싸는 보자기), 다라니 주머니 일괄 등이 선보여진다.

또한 사리장엄구로는 통일신라 금동사리기, 유리제 사리병, 수정제 사리기, 고려시대 동제사리기 일괄과 청동 탑형사리기, 은제 사리병, 은제 거북형 사리기, 조선시대 석제 사리호, 중국 옥제 사리병, 간다라 출토 석제 사리함 일괄, 청동 사리병, 티베트 청동사리병, 스리랑카 금동 탑형 사리기 등이 전시된다.

박물관장 장호 스님은 "불복장 관련 유물엔 지역 풍토와 시대정신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며 "불교 유물과 유산은 모두 삼보의 정신이 깃든 성보이자 살아숨 쉬는 부처님의 법문이다. 그 예술성과 유산적 가치도 뛰어나지만 무엇보다 유물에 담긴 신앙의 정수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금동 및 유리제 사리기 일괄.



복장물을 넣는 후령통 일괄.

이어 장호 스님은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가듯, 우리 마음도 중생계서 연화정토로 향해가도록 이번 특별전을 통해 무한생명의 실상을 느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화·애니메이션, 불교미술 개성 듬뿍

제5회 붓다아트페스티벌, 김백설·장정윤 작가 작품 소개

양경수·김지원 작가 등 신선한 불교미술작가들을 발굴해 낸 붓다아트페스티벌이 올해는 더욱 창의적이고 새로운 작가들의 참여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3월 23~26일 3호선 학여울역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개최되는 제5회 붓다아트페스티벌에는 김백설·장정윤 작가의 개성 있는 작품들이 소개된다.

김백설 작가는 일상공간서 부처님을 만나는 순간들을 한국화 작품으로 표현, 특유의 편안함과 따뜻함을 자아낸다.

아울러 불교미술의 도상을 재해석해 애니메이션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 개성 있는 작품을 선보이는 장정윤 작가는 "캐릭터와 같이 재밌고 귀여운 부처님을 표현함으로써 불교미술에 대한 호기심을 일깨우고 싶다"고 밝혔다.



캐릭터처럼 개성 있게 표현된 수월관음도. 장정윤 作

제5회 붓다아트페스티벌 무료관람 신청은 3월 17일까지 2017서울국제불교박람회 공식 홈페이지(www.bexpo.kr)에서 가능하다. (02)2231-2013

박아름 기자

佛事의 모든 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일주 올림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456-1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5738-3859.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빙의치유(영가장애) 상담환영!!

빙의치유도 전문가를 만나야 문제해결이 가능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 가족의 행복이 걸린 문제입니다!!

각종 빙의의 구체적 증상

- 사람이 갑자기 어느 시점부터 이상 행동하는 경우 (폭력적으로 변한 경우, 술을 갑자기 많이 먹는 경우, 술 먹으면 눈빛이 바뀌는 경우, 밥을 끊임없이 많이 먹는 경우 등)
- 잠잘적 마다 많은 꿈에 시달리는 경우, 잠잘적 마다 가위 눌리는 경우
- 숙면 취하지 못하고 불면증 심한 경우
- 어느 시점부터 사람이 의욕이 없고 우울해지고, 몸이 마르고, 몸이 천근 만근 무거우나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경우
- 불안, 공포, 무서움증이 심한 경우
- 알 수 없는 머리 두통, 가슴통증, 배아픔 등이 있는 경우
- 환청, 환각 증세가 심한 경우
- 가정불화, 사고 우환이 계속되는 경우
- 중, 고등학생이 갑자기 이상 행동, 폭력적 행동, 학습능력저하, 자살충동 일으키는 경우
- 장례식장, 상가집, 국내외 여행 다녀온 후 몸과 마음에 이상 증세 있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을 해도 효과 못 보신 경우
- 아무리 센 신기운도 제압, 천도가능 함.
- 신기운, 무병에 시달리는 경우
- 동물(소,돼지,개,닭,오리,어류 등). 식물(큰나무 베고 탈난 경우) 영가도 천도 가능함.

상담해법 문제해결 중심으로 상담 : 빙의치유 전문자격 갖춤

- 차후 지속 관리해 드림 (또 다른 기운이 들어올 수 있음)
- 원격치유 가능 (외국에 있는 분도 치유가능)
- 몸안에 들어온 영가제령, 최고실력 보유 (전국 최고)

상담문의처 | 제주 불교금강선원 (빙의치유영가천도전문상담원)
☎ 064)746-0789 ※ 전국 어디든 상담환영!

오시는길 : 제주시 삼무로 47, 3층 (연동) 삼무공원버스 정류장 하차하여 바로

이젠 몸에 좋은 천연방향제가 대세!!
천연 한방방향제
동의보향 DONGUIBOHYANG 香

동의보향은 한방약재 중 향이 좋은 생약재를 엄선한 한약 방향제입니다. 그냥 놓아두는 것만으로도 숲속의 아침처럼 청정하고 상쾌한 향기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동의보향은 화학방향제와는 달리 자연에서 얻은 천연향으로 심신을 안정시켜 건강한 생활을 지켜주는 향기보약입니다.



주는 이의 마음처럼 향기로운 동의보향은 오래토록 기억되는 좋은 선물입니다.

선물용 대량 구매 시 추가로 덤 증정
- 용도 : 자동차, 공부방, 침실, 장롱 등
- 규격 : 12*19cm(복주머니),100g

주문전화 : 010-5607-3313 (062)385-9954
입금계좌 : 농협 810-02-157670 (박해숙) 제조원 : 수풀림

현대불교신문 구독안내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구독문의 : 02)2004-8200